

설립 15주년 맞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

“국제도시 광주 알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할 것”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금남로 전일빌딩을 떠나 오는 16일 광주 동구 삼호센터(중양로 196번길 5)로 이전한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지난 1999년 시민단체 사무실에 책상 하나로 시작한 광주국제교류센터에는 현재 인턴직원까지 포함해 19명이 일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세계인과 호흡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 중이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지구촌과 호흡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곳은 지역인재들의 글로벌 시야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 지역민과 함께 생활해볼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펼쳐왔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내국인들이 생생한 해외 소식을 외국 친구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강연까지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민간 힘으로 운영하는 건 전국 유일
시민 후원·市 지원으로 사무실 이전
홈스테이·포럼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아시아문화포럼’(2010), ‘아시아청소년문화캠프’(2008)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후원 회원 1000여 명을 확보하기까지 15년을 함께 한 신경구(66) 소장은 그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었다. 초대 소장을 맡아 15년간 자리를 지킨 신 소장은 전일빌딩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마땅한 공간과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담담한 상황이었지만 마냥 초조해 하기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음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직원들과 백방으로 땀 결과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마련하고, 광주시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깜짝 놀랄 결과를 이뤄냈다. 갈 곳을 잃었던 처지에서 현재 사무실(396㎡ 약 120평)보다 더 넓은 공간(671㎡ 약 203평)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사무실 이전 후에는 인원을 충원하고 지역민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늘릴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주관해 구상원들의 국제 감각을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 소장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해 하지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유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국제행사를 주관하며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여기서 얻은 인적네트워크가 진짜 ‘교류’라고 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전문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 교단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던 것처럼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전라도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그는 충청북도 진천 출신이다. 지난 1971년 공군부대 영어교관으로 광주에 처음 온 후 1981년부터 전남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지난해 2월 교단에서 퇴직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지난 15년간 이끌어 새로운 15년을 준비하는 신 소장은 광주와 광주시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갖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겪으면서도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광주국제교류센터가 다른 지역에서 못한 성과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청사진도 제시했다.

“군사정권의 압박으로 온 나라가 엄혹하던 시절 광주는 당당히 저항했고 민주화를 꽃 피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지만 인간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은 광주뿐입니다. 저희는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운영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직원들의 노력과 지역민의 관심 속에서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의 062-226-2732.

/글·사진=양세영기자hot@kwangju.co.kr

광주시 ‘제2순환도로’ 매입 유리해졌다

법원 “맥쿼리 자기·타인자본, 조달금리 원상회복해야”
최소 3천억원 이상... 투자자 이익배분 한계 매각 예상

광주시에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매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맥쿼리측이 법원이 명령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자본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교법의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맥쿼리는 2000년 12월 29일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본구조로 자기자본금액, 타인자본금액, 타인자본조달금리를 되돌려야 한다.

이는 법원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광주시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맥쿼리측의 최초 자기자본금액만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맥쿼리측이 자기자본금액 413억원, 타인자본금액 997억원, 타인자본조달금리(추가 이자비용 및 기회비용) 1630억원 등 자본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차액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민간투자금을 모아 투자에 나서는 맥쿼리의 특성상 3000억원대에 이르는 자본을 마련해 원상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해 줘야 하는 데, 대규모 자본을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사실상 이익 배분 등이 어렵게 돼 결국 제2순환도로를 매각할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다만, 시가 주장하는 타인자본조달금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이자금액 등의 산정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맥쿼리측은 지금까지 최초 자금조달 당시 자기자본금 543억원이 자기자본비를 축소로 2003년 130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차액 413억원만 채우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맥쿼리측은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워 조만간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광주교법의 판결을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자본(맥쿼리)의 특성상 주주의 이익창출이 어렵다면 결국 사업체(제2순환도로 1구간)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 장화동·강은미 공동위원장은 이날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 대법원 승소, 순환도로 관리운영권 매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당장 엄청난 세금이 절감됐다고 홍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두 위원장은 “이번 승소는 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민간투자자에 대한 법적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광주시가 승소 이후 홈페이지, 각종 단체 명의를 플래카드 게시 등으로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의 시민 세금이 절감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장기 기증 희망자 전국 최하위권

광주 2만2천·전남2만3천명
작년말 전국 100만명 돌파

국내에서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장기 기증 희망자는 전국 15개 시·도 중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장기 기증 희망자가 105만3196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28만 6376명이 장기 기증

약속을 해 전국 15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지난해만 3만 5326명이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지난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2141명이 장기 기증을 희망, 전국의 2.1%(1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장기 기증 희망자는 2만3534명(2.2%·14위)이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장기 기증 희망자는 ▲2010년 3141명 ▲2011년 3489명에서 ▲2012년 1585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지난해 4809명으로 부쩍 늘었다. 전남도 비슷해 ▲2010년 2277명

▲2011년 2668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1648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5043명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급증한 데는 4월 이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신청 방식이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센터측은 분석했다.

센터측은 또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 장기 기증서약서를 보유한 지역민에 대해 입장료의 50%를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도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의 장기 기증 희망자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안공항~기타큐슈
2월, 전세기 6회 운항

전남도는 14일 “일본 스타 플라이어 항공사가 오는 2월 한 달간 무안국제공항~기타큐슈 간 전세기를 6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에서 기타큐슈까지는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며, 항공기는 A320기종으로 좌석 규모는 144석이다.

이 항공기를 이용하면 기타큐슈, 후쿠오카, 삿포로, 구마모토 야스 등지 관광지의 온천여행과 자연경관을 관광할 수 있다. 또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인천과 김해공항을 이용했던 광주·전남 여행객은 인천공항 등지로 가는 시간(왕복 8~10시간)과 비용(6만~8만원)을 줄이 수 있게 됐다.

이 전세기는 전남·광주지역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일본 관광객 유치 위해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송광사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향후 정기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로 확충

도서관정책, 종합계획 발표
1인당 장서수 2.5권·사서 총원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이 1100개로 늘어나고,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2.5권 수준으로 확충된다. 또 온라인자료 납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법도 개정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최은주)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2014~2018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서관 핵심 인프라인 시설, 장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12년 828개 인 공공도서관 수를 매년 50개씩 늘려 2018년까지 1100개관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2년 1.53건 규모인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도 2018년 2.5권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2012년 1만4922명을 2018년 6.0명으로 확대해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는 2012년 1만4716명에서 2018년 7575명으로 낮아진다. 또 학교 도서관 사서도 2012년 689명에서 2018년 134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차 계획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지역에 우수 교양·문화 도서 보급(매년 1000개관, 단량권 500여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확대(2012년 발간자료의 5%→2018년 10%), 다문화자료실 조성(매년 10개소) 등도 담았다. /연남뉴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학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편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편입생 모집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학과	6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1	-
	유아교육과	1	1	2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8	-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5	-	-
총계		28	2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1. 6(월) ~ 17(금)
· 전형일 : 2014. 1. 23(목)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